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의 부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쏘는 것을 제거하신 것에 대한 영광의 극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승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리며 15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나 영적이라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경배와 찬양의 극치로 우리를 데려갔고, 그리고 16장에서 일종의 “쿵”하고 떨어지는 것같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는 매우 실질적인 일들을 다루면서 16장을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천국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일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일들로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걷는 것입니다.

1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여 저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기 전에 미리하고, 내가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어떤 헌금이나 모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너희들의 후한 연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초대 교회에서도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관해서 사도행전 (20:7절)에서도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To Every Man an Answer”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해 오는 것은, 한주 중에서 어느 날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4:5)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나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한주 중에서 한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 날 주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13-17절). 이것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손 대대에 걸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의 다른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땅에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의 씨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땅을 영원한 선물로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적으로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만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재앙도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백성들에게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으로 유대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매주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날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모임은 예수님께서 주중 첫날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인, 주중의 첫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도 이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첫날이 교회가 모이는 날이 되었고, 그들은 매주 첫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절기나, 새 달이나, 안식일, 등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을 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스러이 이루어 놓으신 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들에게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두라고 합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요지는 우리는 한 교회라는 교회의 보편성을 그들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곳 고린도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 모금하여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든지, 고린도든지, 어느 곳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교회가 대응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복 주시는 대로, 그들은 고통당할지 모르는 다른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위로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구 킹 제임스 번역본에 있는 은혜 또는 위로금이라는 단어는 당신이 기꺼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기꺼이 주는 것은 어떤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다면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기꺼이 드려진 헌금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하여 질 것입니다.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이방인 교회들로부터의 헌금을 가지고 직접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는 일종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순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항상 이런 종류의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 원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의 교회에 그때까지 적잖은 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상 이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자유를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며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내려왔고, 그 때 바울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었으므로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오기 전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자리를 옮겨 단지 유대인들하고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분열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 보다 하등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 줄 헌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서 걸어진 이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을 위한 이방인 신자들의 사랑과 또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종의 연합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자란 그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을 진짜 정통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단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믿는 것만이 참 진리이고, 만일 내가 믿는 방법과 똑같이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통성을 의문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해결키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갈보리 채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무척이나 질투하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투심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 우리의 사역의 성공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의 유효성을 믿는 것으로 인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모든 은사들은 끝이 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들의 유효성을 믿으며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 그를 점점 더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주일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에 대항하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긴 시리즈였고, 결국은 임원회에서 그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리즈 외에 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 우리의 사역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위험한 수술을 해야 했고, 또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표시로, 그의 병원 비용과 의사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쓴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은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단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사랑을 보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한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이 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갖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하는 몇 사람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간 헌금을 직접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5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6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이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그의 여행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에게로 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며, 어쩌면 겨울을 그들과 함께 지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6월, 오순절 절기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여름동안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로 가서 아마 겨울을 지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의 뜻이거나 혹은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을 주목하십시오. 야고보(야고보서 4:15)는 우리가 내일 이것을 하며 저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개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항상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의 뜻이라면. 만약 주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개방 되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융통성 없이 완고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려야지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당신이 그토록 완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당신을 깨뜨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영을 깨기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던 요나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옹바의 항구로 가서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땅의 끝인 다시스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가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한 거친 태풍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그의 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저들에게 임하였는가를 고하라 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여 이러한 재앙이 있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했습니다. 요나는, 나를 다시 옴바로 데려다 달라, 그러면 니느웨로 갈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만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으니, 나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못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그래, 이제 끝이로다.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셨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배속에서 삼일 삼야를 있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포유동물이었다면 화씨 98.6도로 매우 뜨거웠을 것입니다. 습기 또한 끔찍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풀이 그를 감쌌고 위액이 그를 돌렸으며 물의 깊음이 그를 애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하게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다 풀이 당신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캄캄 어두웠을 것이며, 고기는 물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것이니, 그는 아마도 심한 멀미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삼일 후에 요나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삼일 동안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거친 후에 말입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노라!고 버티는 요나를 깨뜨리기 위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나는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의 뜻이면”,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도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다음 6개월 동안의 나의 계획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이곳에 있을 계획이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를 지나 너희에게 갈려고 하는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듯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사역 초창기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주께서 막으셨습니다(사도행전 16:6-7절). 그래서 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정하였지만, 그것 또한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유연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의 뜻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9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 바울은 내가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나는 여기 머물러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있을 계획인데, 왜냐하면 이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은 다른 곳에 디모데에 대해 말하기를,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나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고, 또 바울의 비전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과

똑같은 부담감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디모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어떤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두들 자신의 유익을 구했지만, 디모데는 사역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아직 젊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말하기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 당시에 살면서 목사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나는 아마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목사로 있기를 원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열이 있었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까지도 힘들게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경험을 한 바울에게도 힘들게 했다면, 이 젊은 디모데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디모데에게 겁주지 말고, 그가 두려움 없이 내게 한 것처럼 주의 일을 하도록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연소함을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어,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갔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를 영접하고, 잘 대해 주어라.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다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흥미로운 것은 아볼로는 사도행전(18:24절)에서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성경에 능한 자로 우리에게 잠시 소개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영 안에서 열성적인 대단한 변증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그의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잘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는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너무나 인기가 있었으므로, 놀기를 좋아하는 욕에 속한 고린도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에게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볼로가 누구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아직도 아볼로에게 헌신을 맹세하면서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각각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기를 진정으로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들에게 오기엔 너무 유명 인사라 너희들에게 오는 것에 관심이 없다 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나는 가기를 원했지만 갈수 없는 일이 생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는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기를 정말로 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인기가 있고, 또 너희들이 그를 사랑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볼로는 이때 바울 하고 에베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한 성격을 지니고, 서로 다른 큰 사역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곳 에베소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볼로에게 저들이 그를 존경하므로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너를 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때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더 형편이 좋아질 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아볼로가 갈 뜻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짙막한 권면을 연속으로 합니다. 첫째로, **13 깨어 있으라. 경계하라. 사단이 멀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으니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의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셋째로, **남자답게** 처신하라! 비겁해지지 말라. 바울은 앞에서 그들이 어린아이들 같음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단한 것으로 너희에게 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쫓을 필요로 하니,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로다. **장성하라!** 그래서 이제 남자답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어린아이처럼 울지 말고 남자답게 행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라.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권하여라. 사랑으로 행하라.

15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참으로 대단한 구절이 아닙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했습니다.

스테바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개심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아주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우리는 게바에게요, 우리는 아볼로에게요, 등등 말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바나는 첫 열매의 하나이었고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16 이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바울의 영적 지도력을 보십시오) **17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오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마도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담은 편지를 바울에게 전하여 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로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형제들인 그들이 온 것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 이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바울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물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온 것을 기뻐했노라.

18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 주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에 의해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몇으로서,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일감을 주어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동안 경제적으로 교회에 의존치 않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울을, 그는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라고 결코 비난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야 했습니다. 주후 49년이나 50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났으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그들도 바울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에베소로 갔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어서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고,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그들의 집을 개방했고,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3세기가 되기까지 교회는 어떤 건물도 갖지 못했기에 초대 교회에는 대부분 집에 가장 큰 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사업의 성공으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은 그들의 집을 교회가 만나는 장소로 개방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왔고 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었기에(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함께 문안 인사를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그의 계획대로 고린도로 갔을 때,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의 편지를 보냈을 때 말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사를 했으며, 로마에서도 믿는 자들이 모이도록 그들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들은 멋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접대하기를 기뻐하며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집을 개방하는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로마에서도 그들의 집을 개방하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20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 시대에 그곳의 관습으로 볼레나 이마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습니다. 이곳에 키가 크고 나의 머리 위에 입맞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후에 그들은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에게는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문안하는 방법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맨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일이었다 아마도 오늘날 포옹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을 대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바울은 대필자에게 편지를 불러주어 대신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에 그의 이름을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듭니다. 그리고는 쓰기를 **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은 심한 시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4:1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심한 시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6:11절)에서도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나쁜 시력으로 인해 글자의 크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기 위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끝으로 개인적인 짧은 편지를 씁니다.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삶에 아주 비참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로서, 구약은 메시아에 관해서 영광스러운 군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 위에 앉으시어 심판과 공의로 그 후로부터 영원히 임하신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그분은 다윗의 왕좌의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창세기 3:17-18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은 저주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는 자라지 못한 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사막이 장미처럼 꽃이 필 것이라는 왕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제거되고, 선인장의 모든 가시에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장미처럼 꽃이 핀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저주가 가시덤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가시관으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죄의 저주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도 황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는 바울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에 이 단어는 아람어로 마라나타(주의 오심)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하여 당신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에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억해야 하는지요. 사실 초대 교회 때는 그것이 통상 인사였습니다. 교회에서나 시장에서 그들은 주께서 오시리라 라는 마라나타를 말하면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었고 위로와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 당시 매우 심한 핍박과 어려운 때를 보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낙담하기 쉬운 상황에서, 주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라는 말은 올바른 관점을 계속 갖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은혜로 끝맺음을 합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인 예수의 은혜와 함께 끝을 맺으며,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는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의 이 권면을 인해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항상 조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일에만 관심을 두어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핍박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시베리아와 우크레인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들도 모두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이 총만한 축복을 서로 나누기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